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 최근 유가 급락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

- 저유가, 국내 경제에 실보다 득이 크다
- 저유가로 높아진 구매력,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발굴 시급

# 목 차

---

## ■ 최근 유가 급락의 한국 경제 파급영향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최근 국제유가 급락의 원인 .....	2
3. 유가 하락의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	5
4. 시사점 .....	11

## Executive Summary

### □ 최근 유가 급락의 한국 경제 파급영향

#### ■ 개요

국제 유가는 2015년 중반 이후 최근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하락할 경우 실질구매력 증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확대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對 산유국 수출 및 석유화학 수출 부진, 산유국의 건설 및 플랜트 발주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 이에 최근 국제 유가 하락의 원인과 저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 ■ 최근 국제유가 급락의 원인

**첫째, (세계 석유 초과공급 지속 전망) 2016년에도 OPEC 석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시장의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IA의 전망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석유 생산량은 0.2% 증가에 그칠 전망이나 석유 소비량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4년부터 누적된 석유 재고로 인해 2016년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석유 초과공급은 소폭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세계 석유 시장의 공급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도 상존한다.

**둘째, (중국 경기 둔화 우려 확대)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석유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최근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9%로 발표된 이후 중국의 석유 소비 증가세 둔화 우려로 주요 국제 유가가 급락한 바 있다.

**셋째, (달러화 강세 및 석유 투기 자금 유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속된 달러화 강세, 석유 투기 자금 유출 등이 유가 하락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의 특성상 달러가치가 상승할 경우 유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015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며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더욱이 최근에 국제 석유 초과 공급 우려가 확산되며 석유 투기 자금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유가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 ■ 유가 하락의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 한국 경제는 원유 및 석유 의존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유가 하락시 이에 따른 반사 이익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석유 소비액은 2014년 기준 5.9%로 독일(2.1%), 일본(3.2%), 중국(3.6%), 미국(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할 경우 이에 따른 원유 수입액 감소 및 구매력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국내 GDP는 약 0.2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유가가 하락할 경우 국내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구매력 증가가 기대되며, 특히 가계 측면에서 보면 소비지출 중 연료비 지출 부담이 감소하면서 추가 소비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순상품교역

조건 지수는 2014년 1분기 88.9p에서 2015년 4분기 100.4p로 상승하며 교역조건이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질무역손익도 2014년 1분기 -4.1조원에서 2015년 4분기 9.8조원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가계소비 지출 중 연료비 비중은 2014년 기준 약 9.7%로 나타났으나, 2015년 3분기에는 8.6%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비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생산비용 감소가 석유제품 제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전이된다면 화학, 운송 등에서는 1% 이상, 기타 산업은 0.2~0.3% 생산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전반의 중간재 비용 감소가 경제 전체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경우 국내 가계의 구매력 증가로 인한 내수 확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유가 하락의 부정적 효과)** 그러나 최근 유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세계 수요 부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된 긍정적 효과가 일정부분 상쇄될 우려도 존재한다. 글로벌 수요 부진과 유가 하락이 겹치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내수 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과거 유가가 30% 이상 급락한 시기와 비교해 보면 최근 유가 하락은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특히 과거 유가 급락기에 비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유가로 인해 對 산유국 수출 및 석유화학 산업 수출이 부진할 우려도 존재한다.**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판매 수입 감소로 산유국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자동차, 가전 등의 수출 부진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수출 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해 수출 금액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 산업의 정제 마진 감소<sup>1)</sup> 및 재고 평가 손실,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된다. **건설서비스 및 플랜트 수주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 및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발주되는 건설 및 플랜트 수주가 급감할 우려가 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중동 지역의 건설 및 플랜트 발주는 국내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의 70~80%까지 차지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중동 지역의 수주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 향후 국내 건설 및 조선 산업 등의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존재한다.

## ■ 시사점

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경제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유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 감소 효과가 기업뿐만이 아니라 가계의 소비 증가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가 유가 변동에 내성을 가지는 경제 체질로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2015년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 북미 정유업계의 가동차질 등으로 높은 수준의 정제마진을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대외수요 감소, 유가 급락 등으로 정제마진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1. 개요

### ○ 국제유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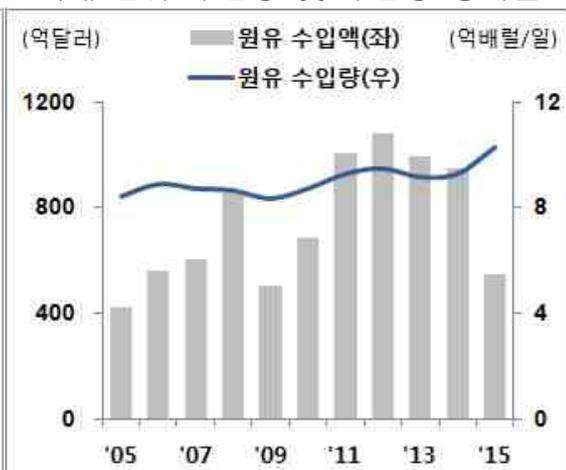
- 최근 두바이 유가 및 WTI,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국제유가가 급락
  - 2015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두바이 유가는 2015년 12월 말 배럴당 32.2 달러에서 2016년 1월 22일 현재 23.8달러로 급락
  - WTI와 브렌트 유가 역시 2015년 12월 말 각각 배럴당 37.0달러, 37.3달러에서 2016년 1월 22일 현재 모두 32.2달러로 하락
  
- 일반적으로 유가 하락은 국내 소비 및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對산유국 수출 및 석유화학 수출 부진 등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
  - 외생적 충격에 의해 유가가 하락할 경우 교역조건의 개선, 물가 하락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생산비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
  - 동시에 산유국들의 재정 악화에 따른 수입 감소,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단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도 발생
  
- 따라서 최근 국제유가 급락의 원인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근 주요 국제 유가 추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 국내 원유 수입량 및 수입액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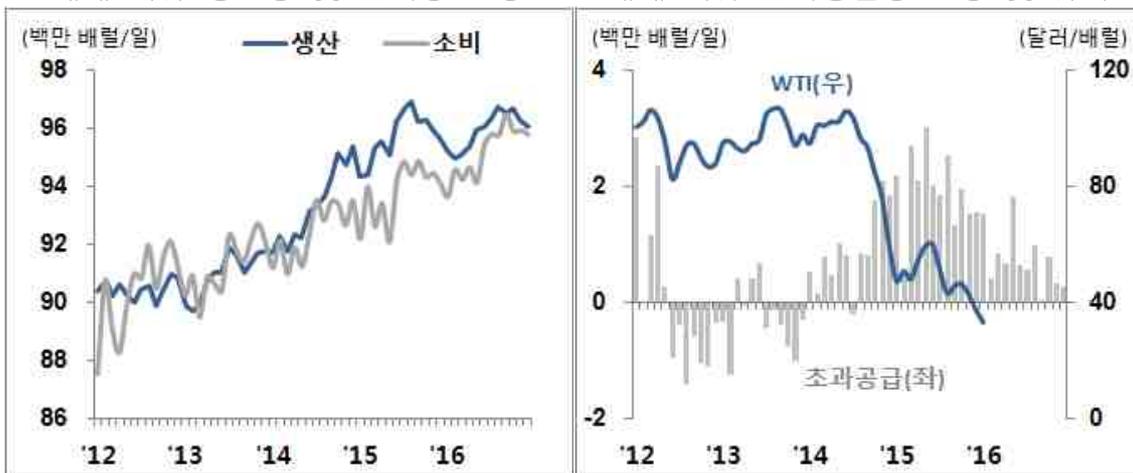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주 : 2015년은 잠정치.

## 2. 최근 국제유가 급락의 원인

### ○ 세계 석유 초과공급 지속 전망

- OPEC의 석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 시장의 공급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EIA 전망에 따르면 2016년 비OPEC 국가들의 일일 평균 석유 생산량은 1.1% 감소하나, OPEC 국가들은 2.2% 증가할 전망이며, 세계 석유 생산량은 2015년 9,571만 배럴에서 2016년 9,593만 배럴로 0.2% 증가할 전망
  - 특히 최근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의 원유 생산량 및 수출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향후 세계 시장의 석유공급 증가세가 지속될 우려<sup>2)</sup>
  
- 석유 소비량도 증가할 전망이나 누적된 석유 재고로 인해 세계 석유 시장의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EIA는 세계 석유 소비량은 일일 평균 2016년 9519만 배럴로 2015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14년 중반부터 지속된 세계 석유 시장의 공급과잉에 따른 석유 재고 누적으로 2016년에도 초과공급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 < 세계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전망 > < 세계 석유 초과공급량 전망 및 유가 >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Jan, 2016.  
 주 : 2016년은 EIA 추정치.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Jan, 2016.  
 주 : 1) 초과공급 = 생산량 - 소비량  
 2) 2016년 초과공급은 EIA 전망이며, WTI 유가는 1월 14일까지 평균.

<sup>2)</sup> 이란 석유장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까지 일평균 생산량을 420만 배럴로 현재보다 150만 배럴 증가시킬 계획.(CNN Money, "Iran sanctions lifted: Brace for oil shakeup", 2016.1.16.)

○ 중국 경기 둔화 우려 확대

- 최근 중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우려가 증폭
  - 중국의 수출 및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 석유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 유가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일일 평균 석유 소비량은 2015년 1,118만 배럴에서 2016년 1,150만 배럴로 2.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1월 19일 이후 주요 국제 유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며 유가 급락을 초래

< 중국 수출,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중국 경제성장률 및 석유 소비량 >



자료 : IMF,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Jan, 2014.  
주 :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은 IMF 전망, 2016년 석유소비량은 EIA 전망.

○ 달러화 강세 및 석유 투기 자금 유출

- 2014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며 유가 하락세가 심화
  -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가치가 상승할 경우 유가가 하락하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14년 중반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지속되면서 달러인덱스가 2016년 1월 22일 현재 99.6p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
  - 특히 유럽과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경기회복세가 부진하며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있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국제 상품 시장에서 석유에 대한 투기 자금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국제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세계 석유 초과공급,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해 석유 가격의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며 국제 석유 시장의 투기자금도 급격히 감소
  - 뉴욕상업거래소의 WTI 순매수(매수-매도) 포지션은 2015년 5월 약 33~34만 계약 수준에서 2016년 1월 첫주 18.4만 계약으로 감소
  - WTI 선물(1개월) 가격 역시 2015년 5월 약 60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6년 1월 첫 주 35.9달러를 기록

< 달러 인덱스 및 WTI 추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국제금융센터.

<WTI 투기적 순매수 및 선물 가격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1계약은 1,000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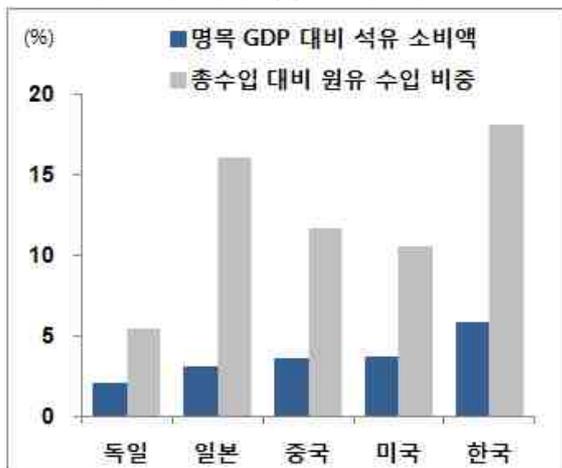
### 3. 유가 하락의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 1) 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 효과

##### ○ 국내 경기 개선 효과

-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원유 및 석유 의존도가 높아 유가가 하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한국의 명목GDP 대비 석유 소비액 비중은 2014년 기준 5.9%로 독일(2.1%), 일본(3.2%), 중국(3.6%), 미국(3.7%)에 비해 높은 상황
  - 총수입 중 원유 수입 비중 역시 한국은 18.1%로 독일(5.4%), 일본(16.1%), 중국(11.7%), 미국(1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은 높은 석유 및 원유 의존도로 인해 유가 하락시 이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실질 구매력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
-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가가 하락할 경우 국내GDP 및 소비,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
  - 유가가 하락할 경우 교역조건 개선,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하락 등으로 국내GDP가 약 0.27%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주요국 석유 및 원유 의존도 >



자료 : IMF, BP, UN Comtrade.  
 주 : 1) GDP는 명목 달러 기준.  
 2) 석유 소비액은 일평균 석유소비량을 연간으로 환산한 후 연평균 유가를 곱하여 산출.  
 3) 2014년 기준.

<유가 하락의 국내 경제 파급영향>

	유가 10% 하락시
G D P	0.27%
G N I	0.41%
소 비	0.68%
투 자	0.0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4),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평 14-41.  
 주 : 국제 유가가 10% 하락했을 경우 4분기 후의 반응

○ 실질소득 및 소비 증가

- 유가 하락으로 국내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총소득(GDI)이 증가해 구매력 향상 및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유가 하락으로 국내 순상품교역조건 지수는 2014년 1분기 88.9p에서 2015년 4분기 100.4p로 상승하며 교역조건이 개선<sup>3)</sup>
  -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의 차이로 정의되는 실질무역손익도 2014년 1분기 -4.1조원에서 2015년 4분기 9.8조원으로 크게 개선
  
- 가계 측면에서 보면 유가 하락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연료비 지출 비중이 낮아지며 다른 부문에 대한 소비 증가가 기대
  - 2014년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약 255만원이며, 이 중 주거용 연료비 및 운송기구 연료비는 약 24만 9천원으로 약 9.7%를 차지<sup>4)</sup>
  - 2014년 중반 이후 유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전체 가구 소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3분기 8.6%로 하락

< 교역조건 변화와 실질 무역손익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 가구 월평균 소비 중 연료비 지출 비중 및 두바이 유가 추이 >



자료 : 통계청,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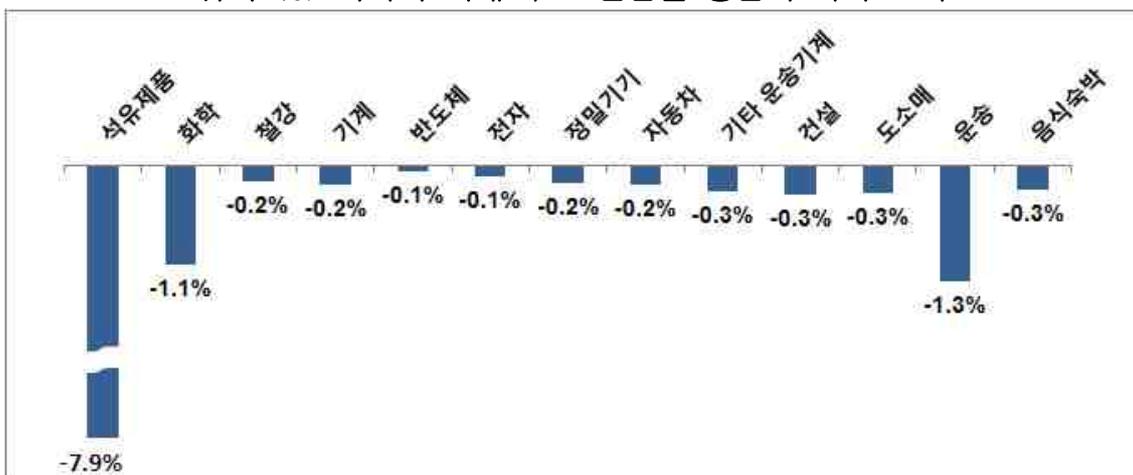
- 주 : 1) 연료비는 주거용 연료비와 운송기구 연료비의 합을 의미.  
 2) 계절조정된 가구 소비지출과 연료비를 이용해 가구 소비 중 연료비 지출 비중을 추정.

3) 순상품교역조건 지수의 상승은 수출단가 상승이 수입단가보다 커서 1단위의 수출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증가함을 의미.  
 4) 가구 소비 지출은 계절성이 강해 3분기까지 자료가 제공되는 2015년이 아니라 1~4분기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2014년 자료를 통해 평균 소비 지출액과 연료비 지출액을 계산.

○ 기업의 생산비 하락

- 최근 유가 급락으로 인해 국내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
  - 국내 수입물가지수는 2014년 중반부터 하락폭이 커지며 2015년 4분기 전년 동분기대비 14.2% 하락
  -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2014년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5년 4분기에는 전년동분기대비 4.4% 하락
  
- 유가 하락이 석유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경우 산업 전반의 중간재 비용이 감소하며 산업 전반의 생산비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
  -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한다면 국내 주요 산업들의 생산비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화학, 운송 등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
  
-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로 전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 가계의 구매력 증가 및 내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다만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시 기업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증가 및 내수 확대 효과가 제약될 것으로 판단

< 유가 10% 하락시 국내 주요 산업별 생산비 하락 효과 >



자료 : 2013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유가가 하락한 만큼 석유제품의 가격이 하락해 전산업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 하락 효과가 파급된다고 가정.

2) 유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 효과

○ 세계 수요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

- 최근 유가 급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세계 수요 부족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긍정적인 영향이 일정 부분 상쇄될 우려
  - 최근 IMF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급락은 세계 석유 공급 증가와 더불어 세계 수요 부진 요인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sup>5)</sup>
  - 글로벌 수요 부진과 유가 하락이 겹치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 소비 심리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내수 부진이 발생할 우려
- 다만 과거 유가 급락기와 비교시 수요 감소로 인한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
  - 과거 유가가 30% 이상 급락한 것은 1986년, 199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였으며, 1998년과 2009년은 각각 아시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 과거 유가 급락기와 비교시 최근 세계 경제는 공급 증가 및 수요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2015년은 과거 유가 급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지만 세계 경제성장률은 다소 높아 수요 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

< 과거 30% 이상 유가 급락기의 세계 경제 상황 >

(%)

	연도	유가	원유 수급		세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생산	소비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신흥국		
1차	1986년	-52.4	5.2	2.9	3.4	3.2	3.6	11.7	2.9	29.9
	1987년	29.4	0.5	2.1	3.8	3.7	4.0	14.6	3.2	38.9
2차	1998년	-33.0	1.9	0.7	2.6	2.7	2.4	6.4	1.6	13.6
	1999년	41.3	-1.6	2.3	3.6	3.6	3.7	6.1	1.4	13.0
3차	2009년	-34.9	-2.1	-1.2	0.0	-3.4	3.1	2.8	0.2	5.2
	2010년	27.1	2.5	3.3	5.4	3.1	7.5	3.8	1.5	5.8
4차	2015년	-47.8	2.6	1.5	3.1	2.0	4.0	3.3	0.3	5.6
	2016년	-	-	-	3.6	2.2	4.5	3.4	1.2	5.1

자료 : BP, IMF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 전년대비 증감률.

2)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은 IMF 전망.

5) IMF(2015.7.14.), "Global Implications of Lower Oil Prices".

○ 對 산유국 수출 및 석유화학 산업 수출 부진

- 유가 하락으로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판매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 산유국 수출 감소가 지속될 우려
  - 우리나라의 총수출의 5.2%를 차지하는 對OPEC 수출은 2015년 11.3% 감소
  - 특히 상대적으로 對OPEC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자동차, 가전의 경우 2015년 수출이 각각 9.6%, 10.8%, 19.7%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타격이 큼
  - 향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OPEC 국가를 포함한 산유국들의 구매력 약화로 對산유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
-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수출 물량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
  -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품목의 경우 수출물량 측면에서 보면 2014년 중반 이후 증가세가 지속(단, '15년 4분기 증가율 0.3%로 하락)
  - 그러나 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품목의 수출단가도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수출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
  -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유가 급락으로 인해 정제 마진 감소<sup>6)</sup>, 재고 평가손실 발생 및 매출 감소 등이 우려

<국내 주요 품목별 對OPEC 수출 현황>

	2013 2014 2015 (%)		
對OPEC 수출 (5.2)	-6.4	5.5	-11.3
석유화학 (3.8)	-5.0	1.4	-27.8
철강 (8.7)	-36.8	-3.1	-9.6
자동차 (10.1)	-0.3	4.1	-10.8
기계 (9.3)	-32.3	10.8	3.8
가전 (11.7)	10.8	5.9	-19.7
IT (0.6)	-9.0	-4.3	-32.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품목의 괄호는 2015년 기준 품목별 총수출 대비 대OPEC 수출 비중.

< 석유화학 수출액 및 수출물량, 국제유가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공사.  
 주 : 1) 수출물량은 중량 기준.  
 2) 석유화학 수출은 MTI 코드 기준 석유제품(133), 석유화학(21)의 합.

6) 2015년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 북미 정유업계의 가동차질 등으로 높은 수준의 정제마진을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대외수요 감소, 유가 급락 등으로 정제마진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건설서비스 및 플랜트 수출 부진

-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 및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산유국들이 건설 및 플랜트 투자 부진 우려
  - 유가 하락으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가 지속 악화
  - OPEC 회원국들의 경우 2016년 쿠웨이트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OPEC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역시 이란, 쿠웨이트, UAE 등을 제외하고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감소로 인해 건설 및 조선 산업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확대
  - 금융위기 이후 고유가 시기 중동 지역의 건설 및 플랜트 수주가 급격히 증가하며 국내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의 70~80%를 차지
  - 저유가로 중동 지역의 건설 및 플랜트 수주 부진 지속으로 현재 국내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및 조선 산업의 회복이 지연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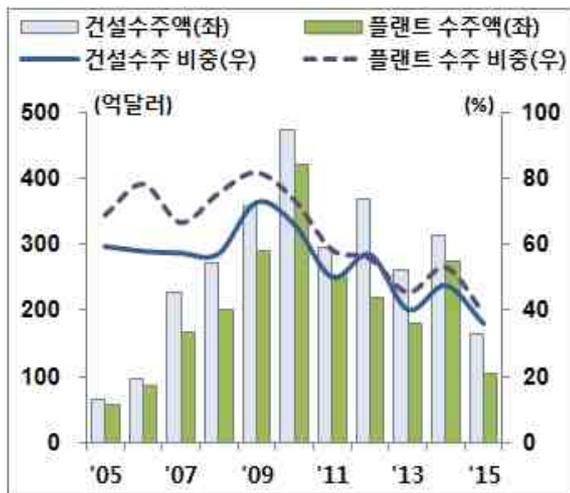
<OPEC 회원국 경상 및 재정수지 전망> (%)

	재정수지		경상수지	
	2015	2016	2015	2016
알제리	-13.7	-11.2	-17.7	-16.2
앙골라	-3.5	-1.4	-7.6	-5.6
에콰도르	-5.1	-3.7	-2.6	-2.8
인도네시아	-2.3	-2.3	-2.2	-2.1
이란	-2.9	-1.6	0.4	1.3
이라크	-23.1	-17.7	-12.7	-11.0
쿠웨이트	1.3	0.1	9.3	7.0
리비아	-1.4	-1.1	-1.7	-2.7
나이지리아	-3.9	-3.2	-1.8	-1.2
카타르	4.5	-1.5	5.0	-4.5
사우디	-21.6	-19.4	-3.5	-4.7
UAE	-5.5	-4.0	2.9	3.1
베네수엘라	-24.4	-25.0	-3.0	-1.9

자료 : IMF.

주 : 1) GDP 대비 재정 및 경상수지.  
2) IMF 추정 및 전망치.

<對중동 건설서비스 및 플랜트 수주>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주 : 전체 해외건설수주액 및 플랜트 수주액 대비 중동지역 국가의 건설수주 및 플랜트 수주 비중을 의미.

#### 4. 시사점

○ 유가 하락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부정적인 영향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에 실질 소득 증대, 소비 확대 여력 증가, 생산비 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동시에 수요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 對산유국 수출 및 석유화학 수출 부진,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부진 등 악영향도 존재

○ 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경제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2016년에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유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상존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산유국 발 경제위기, 중국 경기 부진 심화 및 금융리스크 확대 등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유가가 추가 하락 또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
- 또한 국제 유가의 급변동이 환율 급변동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화
- 저유가 기간에 유류 비축량을 증대시키고 산유국에 대한 장기수급계약 조정 등을 통해 원유 수입 비용을 축소하며 원유 자원 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 필요

둘째,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 감소 효과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의 소비 증가 및 투자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 유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억제하는 한편,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 효과를 적시 반영할 필요
- 한편 기업의 생산비 절감이 R&D 투자,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대책과 더불어 가계의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가 유가 변동에 내성을 가지는 경제 체질로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현재의 저유가 상황에 따른 혜택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유가 변동에 강한 경제 체질로 개선해야할 필요
  - 예를 들어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원유를 수입해 단순히 정제 가공하여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한 하이테크 분야 수출을 확대할 필요
- 한편 건설 및 플랜트 부문 역시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중동 수주 의존도를 벗어나 선진국 및 신시장에 대한 진입 노력을 지속할 필요 **HRI**

조 규 립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ogyurim@hri.co.kr)